

월요광장

대인 홍남순 변호사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 정약옹은 오래 전에 아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텐가?”라고 말하여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역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 깊은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어떤 삶이 대인(大人)의 삶이고 어떤 삶이 소인(小人)의 삶인가까지 밝혔다. “맹자(孟子)는 대체(大體)를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지만 소체(小體)를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어 금수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여 죽어서 몸이 식기도 전에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안되려면 대인다운 삶, 즉 ‘대체’를 기르는 사

람이 되기를 권하였다.

최근의 우리 광주에는 대체를 기르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제는 만인이 그분은 ‘대인(大人)’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계시니, 바로 대인 홍남순 변호사였다. 얼마 전 5·18국립묘지에서는 홍 변호사님의 11주기 기일을 맞아 많은 후배들이 모여 추모회를 열었다.

인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 5·18의 진상을 밝히고 광주 시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운동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또 그 뜻을 계승하자고 모여 우리는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였다. 10년이 넘도록 그분을 잊고 고귀하고 위대한 그분의 삶과 정신을 그대로 두고 지내던 게 으름을 깊이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그분의 삶과 정신을 현양하고 그 정신과 뜻을 계승하려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정성이 모여 이룩된 일이다.

홍 변호사님은 1912년 화순에서 태어나 2006년 광주에서 세상을 떠난던 94년의 인생을 법관으로, 변호사로 사셨으나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학생들이나 재야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전국의 법원으로 찾아다니며 무료 변론의 인권변호사로

사셨다. 독재시절을 만나서는 반독재 투쟁의 선봉장으로 강렬한 투쟁에 앞장섰으며, 윤보선·함석헌·장준하 등 민족의 원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민주화의 고된 길에 물러선 적이 없었다. 이런 민족의 대인을 그냥 잊고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타계하기 2년 전인 2004년 서울과 광주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변호사님의 일생을 문힐 수 없다고 여겨 ‘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이라는 평전을 간행하였다. 그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그분의 삶과 정신을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없다. “못살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죽음에 이를 때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역사 앞에 발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홍 변호사님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

그는 또 “용기가 있어야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자유와 행복을 얻어낼 ‘용기’ 때문에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1967년 6·8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 전남도위원장,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전남대표이사, 1973년 지식인 15인 선언, 1975년 민주회복국민협의회 전남대표이사, 1977년 국제엠네스티 광주지부 고문,

1980년 광주민중항쟁 수습대책위원, 1984년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1985년 5·18광주민중항쟁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1986년 전남민주회복국민협의회 의장으로 일하며 군사독재와의 투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 본 적이 없이, 투쟁의 대열을 지키며 사셨다.

인권변호사, 민주화운동가, 유구한 호남정신의 계승자가 바로 홍 변호사였다. 그분이 사셨던 광주의 공동 15번지는 이제 5·18사적지로 지정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거기에 기념관을 짓고 기념사업을 펼쳐 그분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의 위대한 삶을 현양하는 일은 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오는 12월 8일에는 전국의 민주화 동지들이 모여 기념사업회 결성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하여 자유와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하여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기틀을 놓기로 우리 후배들이 결의하였다.

홍 변호사님이 꿈꾼 호남 정신의 발양, 민주주의의 완성, 조국의 통일 운동에 뜻이 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필자는 불초한 사람이지만 사단법인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아 모두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법조칼럼



신 신 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을 한 해 광주 시민을 환호하게 했던 프로야구가 휴팀인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보였던 김기태 감독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동행 야구!’ 김기태 감독이 취임 이후부터 팀 운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문구다. 어느 특정 선수에 의존하기보다는 더디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선수와 함께 가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KIA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스타 선수이든 아니든 감독에 대한 칭찬이 빠지지 않는다.

필자는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졌다. 특

동행 그리고 배려

히 김기태 감독이 내건 슬로건이나 그동안 보였던 팀 운영 방식에서 감독의 선수들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능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동행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곤란하다.

구성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의 실수나 무능 때문에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남 탓을 하겠지만,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정책보다는 격려나 응원을 통해 힘을 모아 함께 나갈 것이고, 그런 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필자가 재판을 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재판을 담당했고 또 다른 법관들의 재판도 보아왔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판결이 있다.

지난 2006년 대전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선고한 판결인데 당시에도 꽤 큰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택공사가 법

을 잘 몰라 딸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5년 동안 거주한 75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안이었다.

할아버지가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고,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해석을 통해 할아버지가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다.

그 판결문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다. “가를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 경이에 나선 농부의 일가년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마치 수필의 한 문구와 같다.

필자는 판결문의 형식을 떠나 그 내용에서 재판부의 인간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너무도 가슴 뭉클했었다.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당사자들의 가슴에 문친 응어리는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

당시 재판부가 가졌던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걸 역시 인간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후 필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재판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사건이 적지는 않아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다.

다만, 그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그것이 당사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바로 옆 사람에게 조그마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社 說

AI 비상…철저한 차단 방벽으로 피해 줄여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1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복 고장의 대기업 계열 육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닭·오리 주산지인 전남의 현재 도래지에서도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벽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한 육용 오리 농가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AI 의심환축이 확인됐다. 의심환축은 임상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가족을 의미한다.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이 농가는 1만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직후 해당 농가의 오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야생조류를 예찰한 결과 해남 고천암과 순천만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됐다. 다행히 해남 고천암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순천

만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AI는 최근 매년 발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AI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7146만여 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광역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9월 발생한 AI는 이듬해 6월까지 지속하면서 1396만여 마리가 희생됐고, 지난해에는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419건이 발생해 4562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가 살처분됐다.

특히 겨울철에는 철새가 날아와 머물고 떠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AI 발생 빈도가 높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빈틈없는 조동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철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축사 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당국도 24시간 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됐다. 다행히 해남 고천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아파트 경비원은 다른 직종과 달리 60대 이상 노년층이 노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라고도 불린다. 근무자 상당수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입주자들에게 모멸을 당함은 물론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적폐’로까지 지적된다. 전남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상도 고용 불안과 갑질, 취약한 복지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전남 지역 100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공동 주택이 경비원 등을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거나 심지어 최저가 낙찰제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이유는 직접 고용 시보다 임금을 10∼20% 절약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는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과 임금 감소, 열악한 근무 환경의 고착화로 이어진다고 한다. 저가 계약을 한 용역업체들은 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경비원을 줄이는 경우마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여건이 나빠지면서 근무의욕은 떨어진 반면 입주자들의 개인 업무 지시와 갑질은 여전하다고 경비원들은 호소연한다.

일부이지만 잠잘 곳이 없어 경비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경비원들이 있는가 하면, 보장된 휴가 역시 여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운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시기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시간만이라도 난방이 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는 경비원을 입주자들이 직접 고용해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특별법정에 선 아돌프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처단될 방탄유리 상자 안에서 등을 곧추세우고 앉아 차분히 자신을 변호했다. “내 죄는 나의 복종, 국가 질서와 공무원 전서에 대한 복종이다. 나는 탐욕과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을 학대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정부가 했다. 나는, 나의 복종심을 잘못 사용했던 통치자들을 고발한다.”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된 1939년 말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노동당(NSDAP)의 ‘유대인 문제 담당과’ 과장으로 일하며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강제수용소’로 보낸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대 정책의 의미와 목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며 “우리는 한마디로 합법적인 범죄의 시대를 살았다”고 강변했다.

‘과장’이라는 비교적 낮은 지위 덕분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살던 중 1960년 5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발각됐고, 비밀리에 관에 실려 이스라엘로 공수됐다. 그는 예루살렘 법정에서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다 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고 했거나. 요즘 우리 나라의 적폐청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사례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맡은 역할을 떠나, 수사에 직면한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고 결정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관례’라는 단어 뒤에 숨으려 들었다. 양지를 찾고 음지를 기피하는 것인 사람의 본성이라지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라면 좀 더 책임 있는 생각과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기 고



오 승 준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나주 등 전국의 10개 도시에 조성한 미래형 도시다. 그 결과 현재 9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 도시 중 전국 최초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의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 222만평의 부지에 인구 5만명, 주택 2만호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빛가람혁신도시의 빛과 그림자

발전하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연말에 3만 명을 넘어 2∼3년 안에 5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도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5개 기관의 직원 7000여 명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효과도 매우 크다.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 투자 유치(한전 5년 동안 500개 기업 투자 유치 목표, 현재 250여 개 기업과 MOU 체결 및 혁신도시와 광주에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 각종 지원사업 및 행사 추진 등으로 혁신도시 효과가 광주·전남 발전에 큰 빛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해 땅값이 급등하면서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과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는 교통, 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광주·전남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며 생활불편이 없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광

주·전남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빛가람혁신도시는 면 단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협력 관계 또한 혁신도시 효과를 놓고 점차 경쟁 관계로 변하면서 상생 발전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조례제정 문제와 한전공대 유치가 따른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혁신도시 성과 공유 문제는 2005년 10월 나주시와 나주시 의회가 혁신도시 유치전을 벌이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은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따로 공표하고, 약속한 사항이다. 나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전 공대 문제도 잘 만 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지문제로 광주와 전남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혁신도시의 지속적이

고 효과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 화순, 영광, 함평 등 인근 지역과도 적극적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레아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광주의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통 큰 양보와 이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나주 및 이전 공공기관의 견고한 공동 협력과 주변 지역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이전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상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혁신도시 시진 2’의 계획과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혁신도시의 정착 및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광주와 전남이 더욱 하나가 되어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견인할 사업과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빛가람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제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